

푸른 숲에 어린 애국의 세계

신록이 짙어가는 화창한 봄 계절 공화국의 산들에 푸른 숲 설레이고있다.

황금산, 보물산의 더욱 아름다운 레일을 예고하는가 아지마다에서는 푸른 일새 앞을 다투어 돌아나 자기의 푸르청청함을 자랑하며 이 나라 강산을 아름답게 변모시키고있다.

한해가 물라보게 거목으로 자라고있는 저 나무들은 어떻게 이 산천에 뿌리내리게 되었인가.

지금도 7년전 5월 14일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가 훌륭히 실현된 122호양묘장을 현지지도하시며 그리도 기뻐하시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환하신 영상을 사람들은 잊지 못하고있다.

이날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는 현대적인 양묘장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정확한 인식과 표상을 줄 수 있게 건설된 그곳을 돌아보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나라 양묘장의 본보기, 표준, 나라의 첫 양묘공장이 멋들어진 것일터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었다.

이보다 앞서 벌거벗은 산림을 그대로 두고 이제 더는 물러설 길이 없다고 하시면서 전후복구건설시기 온 나라가 떨쳐나 재더미를 털고 일떠선것처럼 산림복구를 자연과의 전쟁으로 간주하고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되어 산림복구전투를 벌리자고 열렬히 호소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전체 인민을 산림복구에 로 불리일으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을 전방성있게 계획적으로 밀고나가기 위한 방향과 방도도 하나하나 제시하여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전당, 전군, 전민이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려 조국의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자》에서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

는데서 나서는 강령적지침을 밝혀주시는데 이어 인민군 군인들과 함께 친히 식수도 하시며 나무심기운동의 불길도 지퍼주시었다.

하루빨리 나라의 모든 산들을 푸른 숲 설레이는 황금산, 보물산으로 만드는데서 목표생산이 가지는 의의를 그 누구보다도 깊이 통찰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122호양묘장을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가 완벽하게 실현된 21세기 양묘장, 우리 나라 양묘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전민시킴을 용대한 구상을 펼쳐주시었다.

초거울에 새차게 몰아치는 찬바람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양묘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종자처리, 싹틔우기, 영양관리, 생태환경보장, 병해충구제, 저장 등에 이르는 모든 나무모생산공정들을 고도로 현대화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문제들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고 양묘장개건을 빠른 시일내에 끝내도록 하시기 위해 설계로부터 자체보장, 건설력투입에 이르기까지 제기되는 문제들을 일일이 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그리고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변모된 양묘장을

찾으시어는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달려붙어 립체전을 벌려 122호양묘장을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양묘장으로 전변시킴으로써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선물로 드리자고 하였던 인민군대가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한치의 편협도 없이 완전무결하게 관철하였다고 군인건설자들을 높이 치하하시었다.

이날 그이께서는 양묘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온도, 습도, 해비침도, 탄산가스함량, 통풍량, 관수량, 영양액 시비량 등 나무모재배에 가장 적합한 조건과 환경을 보장할수 있도록 양묘장에 통합조종체계를 훌륭히 구축한 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단일한 수준의 나무모를 키워내는 양묘장과는 달리 여러가지 수준의 나무모들을 동시에 생산하는 종합적인 양묘장에 통합조종체계를 구축한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이것만 놓고 보아도 우리의 혁명적인 지식인들은 못하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년간생산량은 2000여만그루라고, 모든 도들에도 이 양묘장과 같은 토지절약형, 로력절약형양묘장을 건설하면 해에 2억그루의 나무모를 생

산할수 있을것이라고, 생각만 해도 마음이 호호하다고 하시면서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된 조국강산의 레일을 그려보시었다.

산림복구전투의 강력한 병기창인 양묘장을 각 도들에 일떠세우실 의지를 안으시고 강령도양묘장에 이어 총평은 실농장과 함께 현대적인 양묘장을 일떠세우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각 도들과 군들에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는 양묘장들을 일떠세우기 위한 뒷바람을 일으키도록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나라의 귀중한 자원이며 후대들에게 물려줄 귀중한 재부인 산림조성과 보호관리를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되어 하도록 하시고 찾으시는 곳마다에서 식수정형, 수림화, 원림화사업진행정형을 료해하시며 이 사업을 근기있게 밀고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 느 한 인민군부대를 찾으신 그 날에는 지휘부와 주변산들을 뒤덮고있는 울창한 수림을 보시고 나무를 많이 심고 가꾸어주면, 나무들로 꽉 찼소, 기분이 정말 좋소라고 웃내 만족하시면서 병

영주변을 감싸고있는 나무들을 보기 좋게 잘 자라왔다고, 군인들의 뜨거운 애국심과 정성이 밀거름이 되었을지라고 인민군 군인들의 수고를 헤아려주시었다.

또한 북방의 한 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시어는 돌격대원들이 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침수지역 주민들을 위해 수백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였을뿐 아니라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는데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양묘장을 꾸려놓고 나무심기를 대대적으로 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었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어린 나무모를 심어 거목으로 자라우기까지는 많은 품을 들고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조국의 산과 들에 땅과 열정을 바치며 여기에서 보람을 찾는 사람이 참된 애국자라고 말씀하시었다.

또한 식수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나무 몇대 심었는가 하는 데 있는것이 아니라 몇대를 살렸는가 하는데 있다고 하시며 때로는 인민군 군인들과 또 언제인가는 만경대 혁명학원 원아들과 또 어느 해 봄날에는 조선로동당 제2차 초급당비서대회 참가자들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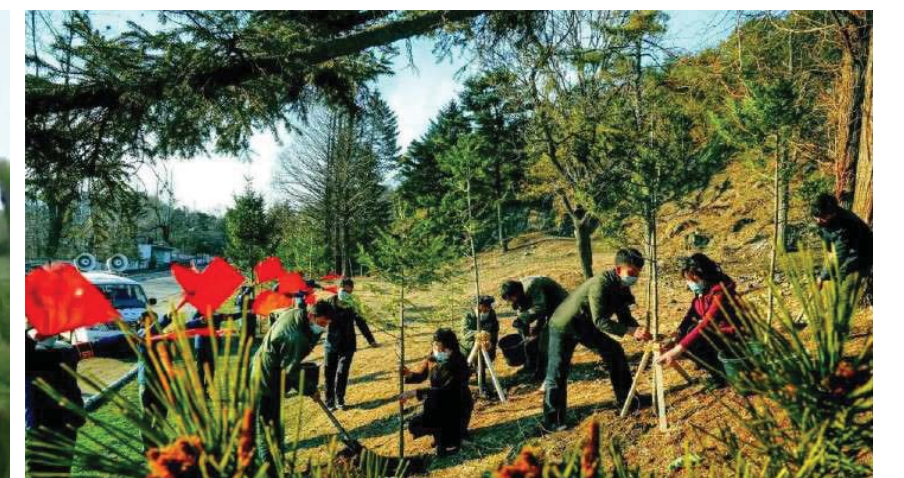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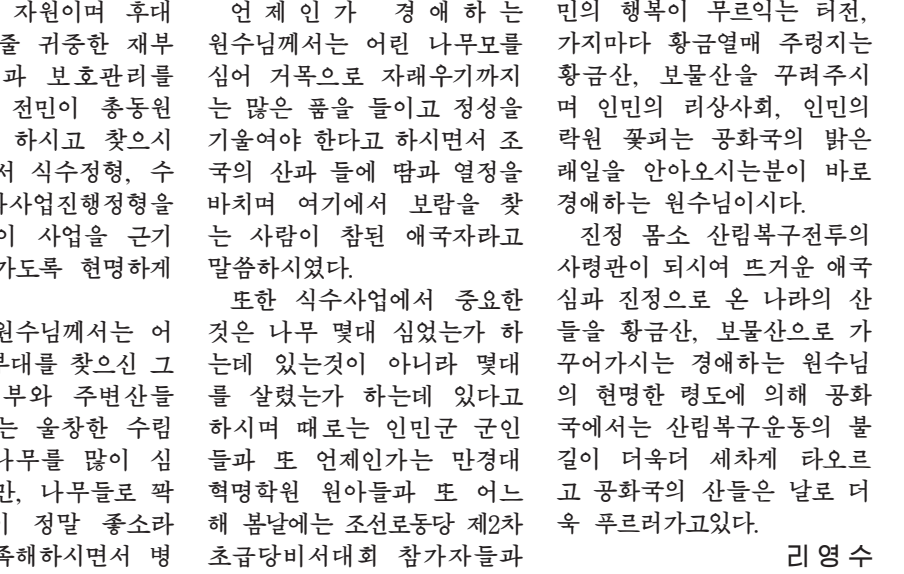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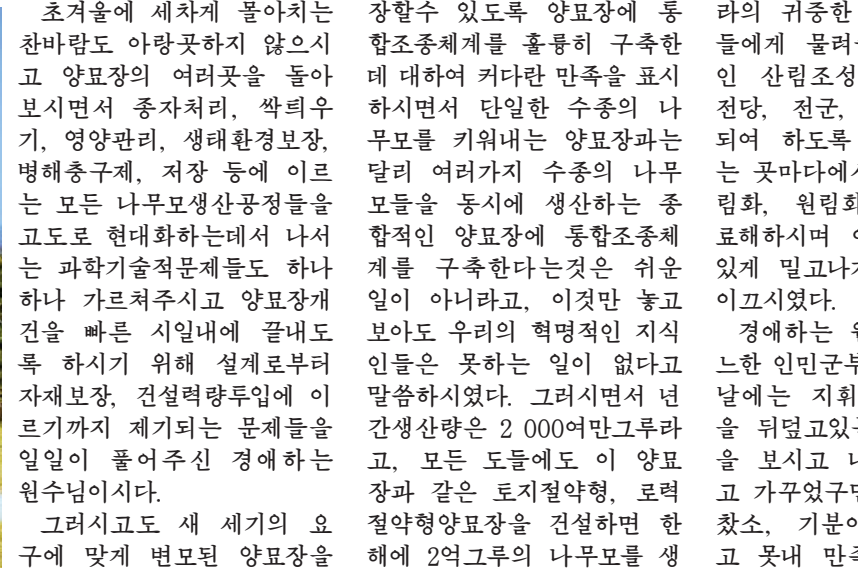
함께 친히 나무를 심으시며 온 나라 인민들에게 식수는 단순히 나무를 심는 사업이 아니라 당의 정책을 심고 뜨거운 애국심을 심으며 영원히 변색없을 순결한 랑심을 심는 중요한 사업임을 깊이 새겨주시었다.

이 땅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도 소중히 품어안아 자신의 후더운 가슴으로 덮혀주시는 절세의 애국자 경애하는 원수님.

후대들에게 푸른 숲 우거진 사회주의선경을 물려줄 그날을 확신하시기에 그이께서는 가요 《황금나무 늙나무 산에 심었소》를 사랑하시며 즐겨 부르곤 하시었다. 노래에도 있듯이 봄철에는 구름꽃 하얗게 피고 그속에서 아침저녁 즐겁게 노래하는 인민의 행복이 무르익는 터전, 가지마다 황금열매 주렁지는 황금산, 보물산을 꾸려주시며 인민의 리상사회, 인민의 락원 꽃피는 공화국의 밝은 레일을 안아오시는분이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진정 몸소 산림복구전투의 사령관이 되시어 뜨거운 애국심과 진정으로 온 나라의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가꾸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공화국에서는 산림복구운동의 불길이 더욱더 새차게 타오르고 공화국의 산들은 날로 더욱 푸르러가고있다.

리영수



청년들이 들끓어 온 나라가 들끓는다

온 나라가 청년들로 들끓고있다.

올해 정초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청춘남녀들이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제7차전원회의소식에 접하고 중요공장, 기업소, 탄광과 농촌, 최전선설초소와 산골마을 학교, 사회주의대건설전투장으로 달려나갔다.

정든 고향과 일터, 사랑하는 부모형제와 동무들을 뒤에 두고 어렵고 힘든 곳으로 자진하여 진출하는 이런 청년들이 얼마나 미덥고 자랑스러우나.

오늘의 대진군에서 로력혁신자로, 창고안의 명수로, 아름다운 미풍의 소유자로 자랑떨치고 있는 사람들도, 조국방선을 철벽으로 지켜가는 병사들도, 세계의 창공높이 공화국기를 휘날릴것 야심만만한 투지를 안고 파라는 훈련을 이어가는 체육인들도 다름아닌 청년들이다.

지구상의 곳곳에서 수많은 청춘들이 속절없이 시들어가고 범죄의 나락으로 끌려떨어지고있을 때 조선의 청년들은 전세계들이 피담으로 일떠세운 사회주의제도에서 행복을 누리

만 하는 세대가 아니라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삶의 순간순간을 위훈으로 빛내이려는 숭고하고 아름다운 인생관을 지니고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해 청춘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 있다.

세계가 부러워하고 격찬하는 청년강국의 존엄을 떨쳐주시는분은 바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다.

가정에서도 자식들을 잘 키워야 부모의 대를 옮겨 잇는것처럼 청년들을 잘 키워야 나라의 대, 혁명의 대가 굳건히 이어질수 있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지론이다.

사회와 집단, 동지를 위하여 자기를 아낌없이 바치고 당이 부르는 어렵고 힘든 곳으로 탄원한 청년들, 잘못 살아온 지난날과 결별하고 새 출발을 한 청년들이 너무도 기특하고 대견하시어 넓은 품에 안아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미더운 청년들이 애국총정의 고귀한 피땀을 뿌리며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일떠세운 청춘대기념비인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찾으시어는 우리 당은 확실히 복흥의 가장 큰 복인 청년복이 있다고, 뜻깊은 이 자리에서 청년들을 진주보석처럼 아끼고 내세워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마음을 가지 합쳐 발전소건설에 참가하여 커다란 로력적위훈을 세운 백두산영웅청년들격대원들과 인민군 군인들, 전체 건설자들에게 조선로동당의 이름으로 뜨거운 감사와 전투적인사를 드린다고 말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청년들에 대한 절대적민심을 안으시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휘황한 설계도에 새 화살표를 그려나가고계신다.

지난 2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화국의 위상과 비약적인 발전상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게 될 평양시 서포지구의 새 거리건설을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과 백두산영웅청년들격대에 통채로 맡겨주시었다.

건설착공식에서 하신 격동적인 연설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의 청년건설자들이 당과 조국의 부름에 물불을 가리지 않으며 혁명하기 좋아하고 투쟁하기 좋아하는 조선청년다운 기질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수도 평양의 북쪽판문에 세상을 놀래울 사회주의발전과 미래의 상징물들을 보란듯이 떠올리리라는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크나큰 믿음을 청년들에게 안겨주시었다.

보람차고 영예로운 건설과제가 청년들에게 통채로 맡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전국각지에서 10여만명의 청년들이 평양의 새 거리건설에 참가할 열의밑에 용약 탄원해나신것으로 하여 서포지구 새 거리건설장은 말그대로 진원관, 대적전장으로 화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하루빨리 꽃피워 서포 지구에 또 하나의 인민을 위한 별천지를 펼쳐놓을 드림없는 맹세로 심장을 끓이신 청년건설자들의 힘찬 투쟁으로 하여 건설장에서는 새 거리의 아름다운 용자를 그려주며 시간이 다르게 살림집의 골조가 치솟고있다.

청년들의 모습에 오늘날 이 나라 먼 레일의 모습이 비친다.

인민들에게 존엄높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고 언제나 마음쓰시는 령도자의 뜻과 구상을 받들어 위대한 시대를 애국헌신으로 만들어나가고있는 이런 미더운 청년들이 많고많아 공화국은 강하고 미래가 밝은것이다.

본사기자 김철



시 초 사랑이 넘치는 곳에서 (2)

복을 주는 병원

그 누가 말했는가
이발은 오복중의 하나라고
그래서인지 찾아오는 사람들
누구나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다
류경치과병원은 복병원이라고

달리아 말하랴
정말 복을 안겨주는 병원이다
최신식의료설비를 모두 갖춰
우리 원수님 인민에게 안겨주시는
현대적인 류경치과병원

눈에 선히 어려어오느냐
.....

보배 병원

류경치과병원을 지나니
저 몇평이건물은 보배병원이란
속담에도 있지 않더냐
사람이 천양이면 눈은 팔백냥이라고

저도 모르게 마음이 끌려
류경안과종합병원 마당에 들어서니
때마침 환자가 퇴원하누나
수십년만에 광명을 찾은 사람
꽃속에 묻혀 울고웃누나

얼마나 보고싶었으랴
날마다 시간마다 변하는
내 조국의 최후의 꽃피워
마음껏 보고 거닐고싶었던 거리
가까운 혈육들의 정다운 얼굴

그 소원 그 꿈을

사랑의 거리는 끝나지 않는다

산천거리에 들어선 걸음
어느덧 거리의 끝에 이르렀건만
은혜로운 사랑의 이야기
다하지 못한것만 같아
쉬이 걸음을 옮길수 없구나

다시 불러보노라
옥류아동병원과 평양산원이며
류경치과병원과 류경안과종합병원
인민의 무병무탈 간절히 바라는
절세위인들의 뜻이 켜친 인민의
병원들이여

정녕 사랑으로 시작되어
사랑으로 이어진 이 거리
끝에 이르렀다 이야기도 끝을
맺으랴
아니구나
사랑은 어느 거리에도 이어져 흐르
거니

대동강을 건 문수저리는
웃음소리 높은 문수물놀이장
어서 오라 나를 부르는듯싶어라
대학거리에 눈길을 돌리면

김영일

병을 고쳐주는 의사 있어 병원이건만
아니구나 이곳은
하늘같은 원수님의 뜨거운 은정이
인민에게 복으로 오는 행복의 집

인민을 위한 참 좋은 세상

이 좋은 제도에 솟아오른
사랑의 병원에서
내 터치는 가슴속격정이어
복이 넘치는 내 나라가 제일 좋더라
원수님 모신 내 나라가 세상에
제일이야라

리치는 격정에 누구나 눈물을
.....

왜 이리도 가슴을 치는것인가
.....

눈이 보배라면
눈의 광명을 찾아준 사랑은
무엇이라 노래해야 하는것인가
말로는 다 전하지 못할 아버지사랑
아, 눈물만이 고마움을 대신하누나

파죽으로 비약할 내 조국이 보여
.....

인민의 웃음이 넘쳐나는 보금자리
.....

이 행복 이 기쁨 주시려
원수님 바쳐오신 심혈은 그 열
마라
언제나 마음에 인민을 품으시고
기술이신 그 로고가 떠올린
만복의 재부, 최후한 별천지여

산천거리가 전하는 사랑의 전설
그 어느 거리에 가도 가득 넘쳐
나니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거리
사랑의 거리는 끝나지 않는다
인민의 행복이 꽃피는 거리

